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 서울”

1995년 필리핀 이후 아시아 두 번째... 상호교류 통한 각국 문화 이해·평화 정신 나누는 행사

“2027년에는 유럽 서쪽 국경에서 극동으로 (무대를) 옮길 것이다. 차기 개최지는 ‘한국, 서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한 공원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 폐회 미사 후 밝힌 발표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세계청년대회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은 1995년 ‘마닐라 대회’ 이후 서울이 처음이다.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이하 WYD)는 무슨 행사일까?’

WYD는 1984~8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세계 젊은이들을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초대할 것을 계기로 시작된 세계 청년 축제다. 청년들이 상호교류를 통한 각국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의 정신을 나누는 행사다.

1984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청소년 25만명이 참가하면서 교황청이 감동했다. 1985년 유엔 국제 청소년의 해를 맞아 또한 한 번 젊은이들을 바티칸으로 초대했고 30만명의 젊은이가 성 베드로 광장에 모였다.

교황 바오로 2세는 이런 호응에 감동해 1985년 12월20일 ‘세계 젊은이의 날(World Youth Day)’을 선포했다.

1회 세계청년대회가 1986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후 2~3년에 7월 하순 또는 8월 초순에 도시를 바꿔가며 열린다. 이 대회에 수백만 명이 모여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서만 개최된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10회, 아메리카는 4회,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에서 각각 한 번씩 열렸다. 아시아에서 WYD 개최는 1995년 필리핀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역대 교황 모두 이 행사에 참석할 점을 감안하면 서울 대회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 역대 교황의 방한으로는 네 번째 교황 방한이 된다.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2014



6일(현지시간) 리스본에서 미사를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차기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2027년 한국 서울을 발표한 후 한국 참가자들이 축하를 하고 있다.

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차례 방한한 바 있다.

천주교계에서는 다음 개최지로 서울 선정에 대해 아시아에서 한국 천주교회 역할에 대한 교황청의 기대 반영으로 분석했다. 아시아 천주교 거점 국가인 한국의 천주교 신자는 인구 약 5200만 중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교계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교황의 방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울 개최는)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징표”라고도 말했다.

이 대회에서는 가톨릭 청년단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관심

과 생각을 교류하고 기도회, 공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참가 신청에 종교 제한이 없다.

교계는 WYD 개최를 통해 외국인 일부 특정층만이 아닌 광범위한 계층에 K 콘텐츠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YD는 행사 기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공동 기도 체험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출신국·언어별 교리교육이, 오후에는 주회 교구와 여러 참여국이 준비한 문화 공연, 전시, 기도회, 음악 공연, 스포츠게임 및 레크리에이션, 성지 순례 등이 이어진다.

지난 1~6일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는 세계 145개국에서 35만 명이 공식 참여했다. 6일 파견 미사에는 15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전주 화정초 신유하 양, 국제 피아노 경연 ‘특별상’

독일 베를린서 열린 모차르트 국제콩쿨서 수상

전주 화정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신유하(11) 양이 대표적인 국제 피아노 경연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피아노 영재 반열에 올라섰다.

신 양은 지난달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모차르트 국제콩쿨에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국제콩쿨에서 신 양은 2라운드 경연을 통해 ‘쇼팽 - Waltz in A flat major Op. 42’와 ‘모차르트 - Piano Sonata No. 12 in F Major K. 332-1st’를, 3라운드 결승에서는 ‘모차르트 - Piano Concerto No.8, K.246 - 1st mov’를 연주했다.

신 양은 국내 예선 1위를 차지해 본선 1라운드



운드는 면제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신 양의 연주에 대해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곡의 음악적 해석이 좋다’는 평을 내렸다.

특히, 심사위원장인 게르노트 비니쉬호퍼(Gernot Winischhofer)는 나이에 비해 음악적 재능이 있고, 연주 기교가 좋아 미래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 양은 “첫 국제콩쿨을 접하면서 무엇을 더 연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1년 정도는 대회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연습해서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년마다 개최되는 모차르트 국제콩쿨은 국내에서 지역 예선과 본선 1·2차를 거쳐 순위 안에 들어야만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장은성기자

김미경 개인전 ‘수묵, 풍경을 담다’

9~14일 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9~14일까지 서울관 JMA 스페이스에서 김미경 개인전 ‘수묵, 풍경을 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느림의 삶’이라는 주제로 그려낸 풍경화를 선보인다. ‘여유로운 아날로그적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보여주기 위해 장수 대상을 세밀하고 차근차근 그려낸다.

이는 이번 전시의 대표작 중 하나인 ‘꿈, 희망 북촌 한옥마을’에 잘 나타난다. 이 작품은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북촌 한옥마을’의 한 장면이 표현된 작품이다. 북촌 한옥마을을 마을 바깥에서 바라본 장면이 아닌, 마을 속에 위치한 ‘나’의 시점으로써 근경에는 한옥마을, 원경은 종로구의 고층 빌딩이 즐비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원경의 흐린 고층 빌딩과는 달리 근경의 한옥은 기왓장, 담장의 벽돌, 창틀, 그림자 하나하나 세밀하게 표현했다.

특히 작가의 세밀하고 세심한 표현은 그가 추구하는 ‘느림의 삶’에서 연유를 찾아볼 수 있다. 효율과 속도의 시대에서 야트막한 한옥, 그 한옥을 덮고 있는 기와지붕을 한 장씩 천천히 그려내는 작가는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느리게 머무르기’를 제안하는 듯하다.

작가는 “평범한 장소들을 그려낸 이번 전시 ‘수묵, 풍경을 담다’를 통해 관람객들이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미경 작가는 전주대학교 및 동대학원 미술학과에서 한국화 석사를 졸업했다. 이번



김미경 작품 ‘꿈, 희망 북촌 한옥마을’

전시는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이며, 이 외에 ‘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상전’, ‘전북수묵화 회원전’ 등을 비롯해 다수의 기획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한 전라북도미술대전 한국화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등에서 강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전북수묵화회, 한국미술협회, 정읍교육지원청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선고등학교와 전북도립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장은성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 새만금 잼버리와 함께 세계문화체험 홍보

전북 최초 다문화 전시·체험 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지난 1일 시작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 잼버리)’는 159개국 약 4만여명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이 참가하는 전세계 최대 규모 청소년 야영축제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새만금 잼버리 기간동안 세계 각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계 문화체험과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극

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익산의 대표 문화유적지인 왕궁리 유적지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8월 2일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이번 홍보부스에서는 세계 전통의상 체험 및 악기·놀이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한국 전통 민속놀이인 ‘뿔놀이’를 선보여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탈리아에서 온 한 참가자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적지에서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



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